

발(足)이 잡이준 ERROR “E04”



목 동 균

70년대 초반 해도 메인 메모리 값과 CPU 사용단가가 비싸다보니 메모리를 아끼고 처리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 코딩 기술이 최대의 덕목으로 치부되었다. 그러다 보니 프로그램이 오목조목 아기자기하게 짜여져서 본인 아니면 남의 프로그램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

필자가 1973년 소프트웨어 하우스를 개설하고 최초로 수주한 프로젝트가 모 연구기관의 전국 고교생 연합고사 서적처리 업무였다.

약력 : • 72~75 UINCOSSA • 75~82 쌍용양회공업(주) • 82~96 쌍용정보통신(주) 이사 • 96~현재 (주)스카미시스템즈 대표이사

당시 국내 컴퓨터 보급대수가 열손가락으로 꼽고도 남을 정도라,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가 없던 시절이었으니 비록 120만원짜리 (당시 대졸 초임이 5 ~ 6만원정도?) 용역이지만 감격스럽기까지 했다.

갑자기 수주한 용역이라 납기가 15일밖에 없어 수주 첫날부터 밤새기를 시작한 필자는 피나는 줄임과 피로와의 전쟁을 계속하며 프로그램 개발에 열중하였다.

에나 이제나 입시를 앞둔 고교생에게는 대통령도 꿈쩍 못하는 것, 에러(ERROR)없는 로직(LOGIC)을 짜느라 계속된 밤새기가 몇일 이던가, 어느덧 납품일이 내일 모래로 닥쳐왔는데 프로그램 테스트가 더디기 그지없다. 잠을 못자고 피로가 누적되어 의식은 몽롱한데 죽어도 잡히지 않는 에러가 하나 있으니 바로 “E04”라는 에러이다.

신나게 몇 십분 작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기계가 서 버리고 “E04”란 에러 메시지를 찍는다. 당시 CPU 사용료가 초당 54원이니 한 20분만 헛돌아도 1달치 급여가 날아간다.

“E04”란 0(영)을 어떤 수로 나누기 시킨다는 뜻인데 어느 구석에도 그런 명칭한 루틴은 보이질 않는다.

내일 오전 중에는 수십박스의 산출물을 납품해야 하는데 죽일놈의 “E04”는 잡히질 않는다.

수상한 곳이면 무조건 고치고 해보면 역시나 “E04”의 반복. 산더미 같이 쌓이는 기계사용료의 걱정은 고사하고 납품을 못하면 나 개인의 개 망신은 물론 용역을 맡긴 연구소도 망한다.

어쩐다?……, 도망갈까? 아니 죽어버릴까?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밤 12시쯤 되자 주위는 적막하고 기계실 오퍼레이터도 의자에서 졸고 있다. 자포자기감과 피로, 공포심으로 지친 몸을 잠시 쉴 요량으로 옆방 창고로 들어갔다. 그 창고에는 수십 박스의 수험생 편지카드와 채점표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그중 아무 박스에 걸터앉아 천근같은 다리를 뺏고 몸을 기댔다. 그런데 발끝에 무엇인가 걸려 “툭”하고 땅에 떨어졌다. 무심코 집어보니 어느학교 학생들의 체력장 성적표였다. 얼핏보고 그냥 옆에다 던져 버리고 다시 몸을 카드박스에 기대며 고민에 빠졌다.

“아— ! 어떻게 하나, ………, E04, E04, E04…….”

그런데 그 순간 머리에 번쩍하는 전율이 ??……!!!

방금 무심코 집어본 체력장 성적이 이상하지 않은가?

어디가?, ………, 어쨌든 무언가 좀 수상하다…….

다시보자, 다시 펼쳐보니 그 학교 전체 학생들의 체력장 성적이 모조리 100점이다. 그렇다면?, ………!!, 그렇다. 이거다.

모두가 100점이면 개인별 편차가 없다.

프로그램 로직 중에는 개인 성적의 표준편차를 계산하는 곳이 있는데 표준편차란 “개인별 성적 편차 (자승)의 누계를 학생수로 나눈 것”이 아닌가 모두가 100점이니 편차는 자연 0(영)이고, 0을 제아무리 자승을 해봤자 0(영)…… !!!, 그렇다. 잡았다 !!!

아!!살았다.

이제는 도망가지 않아도, 자살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수로 0을 나누기 시킨다는 “E04”를 드디어 잡았다…… .

그것도 발(足)이 !!!내 명예와 그 연구소를 발이 살렸다.

세상에 전교생의 성적을 모두 100점주는 수도 있다는 것을 미처 모르고 프로그램을 작성한 어리석음(?)을 한탄하며 로직 수정을 하니 작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빠리릭, 빠리릭……, 분당 1200라인의 속도로 산출물을 찍어대는 천사의 노래같은 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근처 여관으로 달렸다.

“보름간 못잔 잠좀자자”